

고 중, 대학 입시생 필독서

한국명수집

김상 리영 엮음



홍성민
출판사

출판사

고 중, 대 학 입 시 생 필 독 서

圖書目錄

한국명수필

김상 리영 엮음



해일출판사
홍콩 조 선 민 족

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名随笔/金尚,李英编. —牡丹江: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1. 8(2006. 5 重印)

ISBN 7-5389-0999-0

I. 韩... II. ①金... ②李... III. 随笔—作品集—韩国—现代—朝鲜语 IV. I312.66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1)第 055068 号

书 名/ 韩国名随笔

编 者/ 金 尚 李 英

责任编辑/ 李英玉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尹今玉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850mm×1168mm 1/32

印 张/ 8.625

字 数/ 200 千字

版 次/ 2001 年 8 月第 1 版

印 次/ 2006 年 7 月第 2 次印刷

印 数/ 5 001—7 000 册

书 号/ ISBN 7-5389-0999-0/I·352(民文)

定 价/ 15.00 元

(如印装质量有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调换)

머 리 말

하루가 멀다 하게 술한 책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 한 시각이 늦다 하게 정보가 사태처럼 밀려드는 현실이다.

배워야 할 과목도 많고 숙제도 많고 온종일 기진할 정도로 책과 씨름해야 하는것이 요즘 중학생들의 일과이자 부담이다. 배움의 다른 지름길은 없을까? 배움의 지름길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곧 선택이다. 자신의 조건에 맞게 잘 재단된 선택이다.

책을 보는데도 그러하다. 꼭 선택이 필요한것이다. 범상한 글 백편 읽기보다는 명작 한편을 읽는 이것이 바로 시간절약이요, 독서의 지름길이다.

이 책은 한국 유명작가들의 작품에서 그중 제일 잘된 수필만 골라서 묶은것이다. 우리 말의 운치, 우리 말의 묘미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록새록 살아나는 명수필들이다.

이 책에 수록된 수필들은 한국에서도 중학생들이 고중, 대학 입시를 위해 꼭 읽어야 할 작품으로 선정되어있다.

또한 한국 저명한 학자이며 문학가이신 구인한선생이 쓰신 작품해설을 비롯하여 매편마다 거기에 따르는 해설과 설문을 주어 읽는이들에게 이해와 감상에서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물론 시대적차이, 환경적차이로 하여 오늘날 리해함에 있어서 다소 편차가 있겠지만 그 예술적향기만은 읽는이를 충분히 심취시키고도 남을것이며 다 읽고나면 자신이 문학적으로 엄청 커졌음을 놀랍게 느낄것이다. 그리고 글 쓰려는 충동과 더불어 멋진 글구들이 머리속에 불쑥불쑥 떠오를것이다.

이 수필집이 이제 많은 독자들의 글짓기공부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라고 믿어마지않는다.

특히 중학생들이 고중, 대학 입시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둘것을 미리 축하한다!

2006년 5월 15일

편집자

자

레

- 머리말 / 편집자 · 1
- 수 필 / 피천득 · 1
- 인생의 묘미 / 김소운 · 4
- 살아있는 행복 / 김원룡 · 8
- 구 두 / 계용묵 · 12
- 이성간 우정 / 리태준 · 16
- 뽕뿌라나무 레찬 / 김교신 · 21
- 나 무 / 리양하 · 26
- 락엽을 태우면서 / 리효석 · 30
- 청포도의 사상 / 리효석 · 34
- 뻘한 거짓말의 진실 / 김춘수 · 38
- 랭 수 / 서정주 · 43
- 여름밤 / 로천명 · 47
- 길 / 박이문 · 50
- 백설부(白雪賦) / 김진섭 · 56
- 행 복 / 김진섭 · 62
- 무소유(無所有) / 범 정 · 66
- 멋 / 리희승 · 71
- 그믐달 / 라도향 · 74

설 / 전숙희 · 77
일기의 필요성 / 전숙희 · 82
푸른 계절에 꿈을 / 최정희 · 86
보 리 / 한흑구 · 89
소의 덕을 칭송함 / 리광수 · 94
보름달 / 김동리 · 100
책 / 리태준 · 105
신록레찬 / 리양하 · 108
내가 만일 다시 대학생이 된다면 / 리양하 · 113
빵과 밥 / 리어령 · 121
풍요의 잔해로 신음하는 대지 / 박경리 · 126
분 꽃 / 박규환 · 131
아직도 봄을 기다리며 / 박규환 · 136
가을나무 / 박두진 · 144
바보네 가게 / 박연구 · 149
어린이 찬미 / 방정환 · 154
웃음설 / 량주동 · 161
까 치 / 윤오영 · 170
양잠설 / 윤오영 · 174

생명을 확인하는 색 / 천경자 · 178
길레언니 / 천경자 · 183
글을 쓴다는것 / 김태길 · 187
나의 친구 / 김원룡 · 192
나의 사랑하는 생활 / 피천득 · 196
봄 / 피천득 · 200
방망이 깎던 로인 / 윤오영 · 204
인 연 / 피천득 · 209
여우목도리 / 박종화 · 214
청춘레찬 / 민태원 · 218
녀성과 미소 / 임옥인 · 222
수목화의 행복론 / 신일철 · 225
코스모스 / 김광섭 · 231
부엉이 / 현 덕 · 235
대흥사의 소나기 / 박화성 · 239
해바라기 / 유진오 · 242
오늘의 녀성미 / 김남조 · 248
인생은 모험인데 / 김동길 · 252
은근과 끈기 / 조윤제 · 259
송 이 / 안수길 · 265

수 필

피천득(1910년 -?)수필가, 영문학자, 서울대 교수

수필은 청자연적(靑瓷硯滴)이다. 수필은 란초이며 백학이며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녀인이다. 수필은 그 녀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요한 길이다. 수필은 가로수 늘어진 포장도로가 될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깨끗하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주택가에 있다.

수필은 청춘의 글은 아니요, 서른여섯살 중년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며 정열이나 심오한 지성을 내포한 문학이 아니요, 그저 수필가가 쓴 단순한 글이다.

수필은 흥미는 주지마는 읽는 사람을 흥분시키지는 아니한다. 수필은 마음의 산책이다. 그속에는 인생의 향기와 여운이 숨어있다.

수필의 빛깔은 황홀하거나 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회지 않고 퇴폐하여 추(威)하지 않고 언제나 온야우미(溫雅優美)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것이다. 무늬는 읽는 사람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수필은 한가하면서도 라태하지 아니하고 속박을 벗어나면서도 산만하지 않으며 찬란하지 않고 우아하며 날카롭지

않으나 산뜻한 문학이다.

수필의 재료는 생활경험, 자연관찰, 인간성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등 무엇이든 좋을것이다. 그 소재가 무엇이든지간에 쓰는이의 독특한 개성과 그때의 심정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液)이 고치를 만들듯이》 수필은 써지는것이다. 또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막스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가고싶은대로 가는것이 수필의 행로(行路)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것과 같은 이 문학은 그 차가 향기가 없을 때는 수도물같이 무미한것이 되여버리는것이다.

수필은 독백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가지 성격을 가져보아야 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오필리아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가 찰스 램은 언제나 램이면 되는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나타내는 문학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들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도 같은것이다.

덕수궁박물관에 청자연적이 하나 있었다. 내가 본 그 연적은 런꽃모양으로 된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있었는데 다만 그중에 꽃잎 하나만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졌었다. 이 균형속에 있는 눈에 거슬리지 않는 파격이 수필인가 한다. 한조각 런꽃잎을 옆으로 꼬부라지게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못쓰는것은 슬픈 일이다. 때로는 억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다가 그런 여유를 가지는것이 죄스러운것 같기도 하여 나의 마지막 10분의 1 까지도 솟제 초조와 번잡에다 주어버리는것이다.

□ 작품해설

이 글은 수필의 특징을 함축적비유를 통해 나타낸 《수필로 쓴 수필론》이다. 첫머리에 나오는 세련된 은유는 단 몇마디 말속에 수필의 온갖 특징들을 집대성해놓은 수필사의 최고의 명구이다. 강렬하고 두드러진것이 아니라 여유있고 조용하고 우아한것이 수필이라는 정의는 문학이 탈장르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수필을 지나치게 한정짓는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정통 수필이 나아가야 할 목표만은 뚜렷이 제시한다.

이 글은 전부 아홉단락으로 이루어졌다. 수필의 개념과 수필의 속성, 서술방식, 다른 장르와의 구분, 소재, 수필이 가지는 파격의 멋, 마음의 여백을 가지지 못하는 작자 자신의 안타까움들이 단락별로 드러나있다.

《누에의 입에서 고치가 나오듯이》 특별한 사전 구성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속에서 이어지는 글이 수필이며 《차를 마시는것 같이》 담담하면서 깊은 향기를 지니는 글이 바로 수필이라고 묘사한다.

변쩍거리지 않은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는 비단이 수필이고 청자연적의련꽃잎이 단 하나만 약간 옆으로 꼬부라진것이 수필이라는 말은 담담하되 개성과 파격을 가져야 글이 지루하지 않다는 의미로 읽히는 절묘한 비유이다.

딱딱한 설명으로 흐르기 쉬운 주제의 글을 이렇듯 온화하고 우미하게 쓸수 있는것이 바로 이 수필의 특징이고 자신이 말한 수필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것도 바로 그 자신이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수필을 쓰지 못하고 초조하고 번잡하게 살고있다는 결미의 탄식은 도리어 수필에 대한 사랑과 결벽을 엿보게 한다.

■ 생각해볼 문제

1. 지은이가 각각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보라.
2. 수필이 서른여섯살 중년의 글이라고 말한 이유는?

인생의 묘미

김소운(1907년 - 1981년) 수필가, 시인

실패란것이 있고 성공이란것이 있다. 어떤것이 성공이며 어떤것이 실패인가를 가늠하는 모른다. 천원어치 행상군이 만원 밑천으로 판자가게를 내게 된것도 성공이요, 10억 자본의 큰 회사가 5억으로 줄어든것도 실패라면 실패이다. 10만원 리운을 기대했던 장사가 5만원 번것은 실패라고 볼수 있고 5천원을 바랐다가 만원이 생기면 이것은 성공일수밖에 없다. 물질이나 장사속에만 한한것이 아니리라. 인간 일생을 통털어서 과연 어느것이 성공이요, 어느것을 실패라고 할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언제나 가씨는 회의적(懷疑的)이다.

그러나 누구의 눈에도 뚜렷한 결정적인 실패란것이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불행도 있다. 이 실패, 이 불행에 인생을 아로새기는 묘미가 있다고 가씨는 생각한다.

십여년전 가씨는 《바둑판》을 두고 글 하나를 쓴적이 있다. 비자나무로 다듬은 일본식 바둑판 단면의 무늬가 고르고 모든 조건에 합격한 1급품은 30년전 값으로 2천원, 요즘 시세로는 30~40만원은 간다.

이 1급품우에 또 하나 특급품이란것이 있다. 용재(用材)며 치수며 년륜의 무늬며 어느 점에도 1급품과 다른데가 없

으나 반면(盤面)에 머리카락만한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것이 《특급품》이다. 물론 값도 1급보다 10프로정도 비싸다.

흠흠이 있어서 값이 내리는게 아니고 도리어 비싸진다는데 진진한 흥미가 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공들여서 기른 나무가 바둑판으로 완성될 직전에 예측하지 않은 사고로 금이 가버리는수가 있다.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轉落)할 순간이다.

그러나 그것이 최후는 아니다. 금간 틈으로 먼지나 티가 들지 않도록 형질으로 고이 싸서 손가지 않는 곳에 간수해 둔다. 1년, 2년, 때론 3년까지 그냥 두어둔다. 추위와 더위가 몇차례 수없이 반복되고 습기와 건조가 여러차례 순환한다. 그새 상처났던 바둑판은 제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래대로 유착(愈着)해버리고 금갔던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흔적만이 남는다. 언제나 그렇다는것은 아니다. 소경은 언제나 그렇다는것은 아니다. 한번 금간 그 시련을 이겨내는 바둑판은 열에 하나가 어렵다.

일어로 《가야방》이라는 이 비자목 바둑판은 연하고 부드러운 탄력성이 특징이다. 한두판만 두어도 돌자국으로 반면(盤面)이 엷어버린다. 그냥 두어두면 하루밤새 본래대로 다시 평평해진다. 돌을 놓을 때의 그 부드러운 감촉, 《가야방》이 진중(珍重)되는것은 이 까닭이다.

한번 금이 갔다가 다시 제힘으로 붙어진것은 그 부드럽고 연한 특질을 증명해보인, 이를테면 졸업증서이다. 하마트면 목침감이 될번한 비자목 바둑판이 이래서 특급품으로 승격한다.

ㄱ씨가 말하는 인생의 묘미란 이것이다.

실패나 불행은 환영할것이 못된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실패와 성공을 몇차례 수없이 거듭하면서 쓴맛 단맛을 고루고루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만일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실패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막가는 실패요, 불행일수밖에 없다. 금이 간채 제힘으로는 아물지 않는 바둑판 맞잡이이다.

그러나 ㄱ씨는 믿고있다. 때로는 그 불행, 그 실패로 해서 한결 더 깊어지는 인생이 있고 정화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간이 바둑판만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옛날 쓴 ㄱ씨의 글에는 이런 끝맺음이 붙어있다.

행복의 기준은 어디다 두어야 할것인가? 앞 못보는 소경은 단 한번 빛을 보기를 원할것ियो, 다리를 못쓰는 앓은뱅이는 제 발로 걸을수만 있다면—하는것이 가장 절실한 소망일것이다.

ㄱ씨는 그 옛날 수인 호송차에 실려서 대도회(大都會)의 큰길을 달린적이 있었다. 호송차에서 내다보이는 길가는 사람들의 그 행복스런 모습, 그러나 행인들에게 그 행복이 있었던것은 아니다.

제 눈으로 빛을 볼수 있는, 제 다리로 길을 걸을수 있는 성한 사람들이 만일에 소경이나 앓은뱅이의 마음을 가질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불행은 얼마나 줄어들것인가? 자유롭게 제 발로 길가는 행인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수인의 마음을 엿볼수만 있다면 그들은 제자신의 행복에 얼마나 가슴이 떨것인가?

온 천지에 넘쳐흐르는 행복! 목마른자만이 아는 물 한 그릇의 행복! ㄱ씨는 눈을 감고 이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 작품해설

수필 《인생의 묘미》는 행복의 기준을 묻고있다. 행복한 인간, 실패한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을리 없다는 작가의 생각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있다.

금이 간 바둑판의 상처가 아물어 오히려 특급품이 되는 이야기, 거기에서 그는 인생의 불행과 그 극복의 지혜를 말한다. 독자는 그가 얼마나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문사인지를 짐작할것이다. 이런 글은 자칫 교훈적인 설교나 추상적모호함에 머물기가 쉬운 법인데 적절한 예화를 삽입함으로써 구체상이 살아나고 의미 또한 선명해지게 된다. 자기 자신을 ㄱ씨라고 말하는 서술법도 글의 느낌에 객관성을 더한다. 문장은 짧고 경쾌하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다. 묘사에 따라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자신이 보고 들은것을 담담히 기술하면서 거기서 자신이 성찰해낸 깨달음들을 독자들에게 직설법으로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김소운수필의 여운은 길다. 인생의 묘미를 여러 각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독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의 재주때문일것이다. 《불행, 실패로 인해 한결 더 깊어지는 인생이 있고 정화되는 사랑이 있다.》를 핵심문장으로 삼으면서 제 상처를 제힘으로 다스릴수 있는 탄력을 극찬하는 글이다.

■ 생각해볼 문제

1. 금이 간 바둑판의 상처와 그 치유가 인생의 어떤 문제에 비유되는지를 이야기해보라.

2. 여러분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글에 나타난 지은이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라.

살아있는 행복

김원룡(1922년 -1993년) 서울대 교수, 고고학자, 수필가

요사이 관악산은 눈에 덮여서 참으로 아름답다. 맑은 하늘에 흰눈이 반짝거리도 좋고 킁킁한 하늘에서 눈발이 날려도 좋다. 잎이 떨어진 나무사이를 까치가 날고 외로운 박새가 홀로 울고있기도 하다.

아침에 등교하다가 그 경치가 아까워서 산기슭의 눈길을 혼자 걷기도 하고 뒤로 돌아서 서울의 설경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나는 근래에 아름다운 산천을 보는것이 몹시 즐겁게 되었다. 그것도 멀리서 구경하는것이 아니라 그 경치속을 걸어보는것이 좋다. 기암괴석도 좋으나 뽕뽕라가 서있는 혼한 시골길도 좋다. 사람만 없으면 산천이란 언제나 아름다운것이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교외선을 타고 도봉산줄기를 바라보는것도 좋다. 가다가 내려서 걸어보고 다시 타서 흔들려 간다. 서울 바로 근교에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곳이 있다. 아무 옷이나 걸쳐입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하루종일 시골길을 걷는것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인생의 즐거움이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살아서 눈이

있고 발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 원하는 곳을 돌아다닐수만 있으면 그만이다.

미국의 마크 윌리엄이라는 25세의 청년은 암으로 마비가 전신에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간단한 일들—구두끈을 매고 옷의 단추를 채우고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신을 신고 해별의 마당으로 걸어나가는 따위의 가장 간단한 일들, 그것들이 사람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고나면 구두끈을 맨수 없게 되고 또 자고나면 세수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느끼면서 세상을 떠난것이다. 이 청년을 생각하면 이렇게 앉아서 글을 쓸수 있다는것조차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인생의 행복이란 가장 평범한것이다. 인생의 행복이란 언제나 상대적인것이다. 인생의 행복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며칠전에는 서울대 의예과 1학년의 어린 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반 학생들의 얘기에 의하면 생전의 그녀는 너무나 령리하고 어여쁘고 명랑하였다는것이다. 남들 보기에는 그녀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였을가. 그러나 그녀의 가슴속에는 목숨과 바꿀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였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다.

그러나 몸을 던지는 순간 그녀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었을것이다. 똑똑한 학생이 뭔가 착각을 하였던것이다.

이 녀학생이 만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준호의 서화전을 보았으면 결코 몸을 던지지는 않았을것이다. 전신마비의 김씨는 입에 붓을 물고 그 많은 그림들을 그린것이다.

운필(运笔)의 힘과 규모에 한도가 있고 먹과 물감의 농담(浓淡)에 힘이 들었겠지만 입으로 그린 그림은 너무 잘된 작품들이였다. 무엇보다도 화면이 그리 깨끗할수가 없었다.